

무주군, 코로나19 예방 총력

발열체크 초소 운영·방역물품 배부·선별진료소 운영 등 행정력 집중

무주군이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확진자 수는 1월 21일 현재 1명으로,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2월 추진 예정인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비해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 중이며 보건의료원 내에 접종센터 설치하고 위탁 의료기관도 지정해 백신이 도입되는 대로 신속·안전하게 접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황인홍 본부장은 "코로나19 정점 군 무주라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만큼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해 1월 20일로 무주군에서는 8월 30일 전북 54번 환자와의 접촉에 의해 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관내 감염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무주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안전재난과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원에서는 방역대책반과 역학조사반을 꾸리고 의료원 내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다.

또 각 부서, 공무원들마다 담당 마를



무주군이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발열초소 운영 모습)

과 시설 등을 정해 소독과 방역수칙 홍보를 진행하고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대구 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했던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무풍면 접도 지역 4곳에 발열체크 초소를 마련해 공무원 400여 명이 2교대 근무를 했으며, 휴가객이 몰리던 7월과 8월에는 구헌동 관광단지에서 민·관·경 합동 발열체크 초소를 운영해 방역효과를 톡톡히 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2차에 걸쳐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 소득(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월 구매

한도가 50만원이던 무주사랑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려 가계경제에 보탬이 됐다.

무주군 로컬 잡 센터를 통해 4,000여 건의 일자리 구인, 구직, 알선을 성사시켰으며 산림 등 공공분야의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도 추진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기반을 공고히 했다.

무주군민들은 "코로나19가 1년이나 계속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면서 "행정을 중심으로 군민들이 하나가 돼서 지켜온 우리 무주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마스크 착용은 물론, 손 씻기와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로컬푸드 매출 급성장

직매장 1호점 작년 매출액 전년도 2배 달하는 60억원 돌파

진안군은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로컬푸드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진안군은 21일 2020년도 로컬푸드 사업이 '안정과 성장'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외적 확장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9년 1월 호성동(전주시 덕진구)에 문을 연 직매장 1호점의 20년 매출액이 전년도의 2배에 달하는 6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 숭인숍(shop in shop)형태의 2호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 효자동 소재 대형마트 체인점에 납품을 시작하며 전주 서부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확보했다.

진안로컬푸드의 매출 성장을 주도한 품목은 단연 육류로서 지난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진안산 축산물의 우수한 맛과 식감은 물론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서

비롯된 결과다.

무더위와 장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중 1,000원으로 정액 판매 원칙을 지킨 상추 등 합리적인 가격의 채소류 역시 전년 대비 33% 이상 매출이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직매장 내 판매 농산물 40품목의 잔류농약 320성분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며 소비자 신뢰도 지켰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 로컬푸드가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판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안전적인 농산물 수급 조절과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를 위한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편리한 납품 및 배송 체계구축, 건강간 먹거리 공급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질적 성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토목직 공무원 합동사무 추진반 운영

진안군은 2021년에도 토목직 공무원 합동사무 추진반을 구성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파의 날씨 속에서도 11개 읍·면의 현장을 다니며 측량과 설계에 몰두하고 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읍면사무소 토목직 직원이 3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650여건 113억원의 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초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350여건이 넘는 측량을 완료했다.

추진단은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로, 읍·배수로, 세천, 마을 진입로, 소규모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군민들의 삶의 질과 영농 편의 향상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측량 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에 대한 협의 등을 같이 추진하여 사업 실시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합동사무를 통해 신규 시설직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인 실무 경험 축적과 측량, 설계 등의 노하우 학습 등을 통해 자기 발전은 물론 진안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월말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다. 거기에 현지에 맞는 적절한 공법 및 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설계에 일괄 반영하는 등 자체 설계로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더 많은 숙원사업에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조사

장수군은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년 이상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명에 대한 실거주지, 소득여부, 생활여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후 군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납자는 오는 2월 17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거나 9월 말까지 체납세금을 전액 또는 30% 이상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구금지 조치, 공공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히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의회 김광수 의장 군민 목소리 청취 민생탐방

진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은 지난 20일 버스에 올라 군민들의 삶을 직접 살펴보는 민생현장 탐방에 나섰다.

이번 민생탐방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농어촌버스 노선 감축운영에 따른 군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민심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김광수 의장은 군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함께 참여한 진안군의회 전문위원과 건설교통과 교통팀장과 함께 농어촌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 의장은 새해 첫 일정을 소화하면서 "올해에도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진안군과 함께 감회운행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추진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재가암 환자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21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이동 및 내원에 어려움을 겪는 만성질환자, 고령자,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간호사 3명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보건 위생용품, 건강수칙 안내, 영양관리,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감염병에 취약한 기저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비대면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혈압, 혈당 자가 측정과 약물복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선상담과 투약관리도 진행한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이 건강관리 공백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농촌 빈집 정비·활용사업 나선다

빈집 철거·리모델링 통한 무상임대·빈집플랫폼 구축 추진

진안군은 관내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활용에 나섰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귀농·귀촌인이나 청년 등이 거주할 집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 해 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을 위해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본격 추진한다.

빈집 정비·활용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주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에 대한 철거와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무상임대(5년) ▲빈집의 상태·유형별 종합 정보를 구축하는 빈집플랫폼 구

축사업이다.

빈집 철거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빈집과 행랑, 창고, 축사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올해 계획 물량은 총 113동이며, 2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나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는 특정빈집은 직권철거로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 리모델링(재생)은 소유주 동의를 받아 1동당 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거취약계층·귀농귀촌인·청년 등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경우는 2월 3일

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리모델링 관련 사업은 2월초 공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진안군은 올해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은 관내 모든 빈집을 전수조사한 후 상태·유형별로 빈집을 1~4등급으로 구분하여 DB화 할 계획이다.

이후 빈집의 등급에 따라 철거·활용·리모델링 대상으로 분류하여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농촌에 빈집은 많지만, 정작 살만한 집은 없는 것이 문제다"며 "앞으로 빈집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